

2024년 2월 18일 “(아바드의 사람들 6) 중보의 자리에 서다”(민 14:15-19)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모세를 'The Man in the Middle'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삶과 사역을 통해 보여준 중보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간에 선 사람 모세

모세는 자신을 입양한 양 어머니(바로의 딸)와 자기를 낳은 친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합니다(출 1 장). 장성한 후 이집트 감독관과 노동에 동원된 동족 사이에서 끼어들게 됩니다. 모두 중간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자기 민족이 광야로 나가 며칠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바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다가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십니다(열 재앙).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열 번째 재앙을 끝으로 출애굽에 성공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 역할 때문입니다.

[2]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모세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게 됩니다.

이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은혜롭게 언약을 맺었지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결핍과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모세에게 따지기 일수였습니다.

결국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져서 많은 갈등을 빚어냅니다.

민 16 장. 고라와 유력자들이 반기를 듭니다. 온 회중이 그들 편에 서자,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시겠다고 합니다. 이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합니다.

민 13 장. 가나안 정탐 사건 - 10 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은 새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백성들은 돌로 쳐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이들을 없애고 모세를 통해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claim 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달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선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3] 중보자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관해서는, 시내산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분노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애써 중보한 결과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출 34:6-7). 그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적개심을 품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겸손하고(새번역) 온유한(개역개정)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민 12:3).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 경건한 자가 고난을 잘 거치고 난 후 얻는 성품을 뜻합니다.

참 중보자의 모습에 관해 모세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키는, 먼저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격려와 칭찬만 있지 않고, 이스라엘 광야에서처럼 반목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배를 탄 동료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 하며 섬겨주어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소명을 다한다면, 삶과 소명의 참의미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중보의 모습을 보여준 모세의 내적 자질을 우리 모두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어떤 면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2. 나는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까? 가족, 교우들, 동료들을 위해 중보할 때 어떤 보람을 발견하시나요?